

[목회자 모임]  
생명의 주(요11장)

2020. 4. 3. 이현래 목사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살렸다는 그 이야기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은가? 그것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간 것이 아니다. 이틀 동안 다른 데서 유하다가 일부러 그랬는지 멈춰서서 4일 만에 도착한 것이다. 우리 같으면 급하게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틀이나 바깥에서 다른 일을 보고 들어가니까 나흘이 되어 버렸다. 가니까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요 11:39)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래서 굴에 들어 있는 문을 열고 나오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석굴인지 그런 굴속에 시체를 넣어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넣어 놓은 것도 아니고, 똥똥 봉해서 미라 만들듯이 그렇게 넣는 모양이다. 그런데 나오라고 하니까 수건을 동인 채로 나왔다고 되어 있다. 믿기가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이야기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아니라고 해 버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다른 말을 하려고 꾸며서 한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갈등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문제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 그것을 그 시대에 알맞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고 넘어가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문자적으로 다 믿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답이 딱 있으면, 답이 딱 나오면, 그 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때는 다 필요한 것이었지만 답이 나오고 난 후에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다. 답이 없을 때는 답을 찾으라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는데 답이 딱 나와 버리면 문제가 달라진다.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는 변수가 굉장히 많다. 날씨가 변수가 될 수 있고, 병충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병충해 때는 병충해 문제를 취급해야 되고, 일기가 문제일 때는 일기를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신구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인데, 그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다. 추수 때를 바라보고 있는, 농사와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고 있는 길에서 생긴 문제들이다. 그때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모든 것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또 답이 딱 나오고 난 후에는 잘 몰라도 상관이 없다. 답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이 나오고 난 후에는 문제가 없다.

나도 처음에 목회하러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은사나 이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가 70년대 초였으니까 한참 북새통을 치르던 때였다. 서울에서는 순복음 교회가 막 일어나던 때였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맞이라고 보려고 쫓아다녔는데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다. 맛을 못 보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를 보면 열심도 있고 뜨겁고 살아 있었다. 그런 것을 보니까 꺾 잡는 게 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 젊은 나이였지만 결국에는 안 되니까 포기를 했다.

그러다가 길을 잡고 나니까 그것이 없어졌다. 길을 잡고 나니까 미련이 없어졌다. 이것이 길이구나!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되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항상 부담이 되어 있었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다 그런 것인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뭐가 되는 것인가? 그런 부담이 늘 있었다. 그런데 들어올 길을 딱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봐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못 해도 문제가 안 되었다. 그것은 길을 딱 들어서고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었다.

길을 들어서지 못했을 때는 이것인가 하면 이것이 아니고, 저것인가 하면 저것이 아니고 그랬다. 교역자들은 사방으로 밀려 다녔다. 기도원으로 밀려 다녔다가 성경을 연구하는 곳으로 밀려다녔다가 자연히 이렇게 된다. 한 때씩 유행하는 것도 있었다. 빈\*드 성경 연구, 이런 것들에 몰려다니다가 뭔가에 밀려다닌다. 얼른 가서 들어보면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데 길에 들어서면 그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진다. 그 길과는 다르다. 어느 길

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다. 바다를 향해하자면 바다 문제가 있고, 공중을 날아가자면 공기 문제가 있다. 배는 부력을 통해서 물 위에 뜨고, 비행기는 양력을 통해서 공중에 뜬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부력이 아니라 양력이 문제가 되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사람은 부력이 문제가 된다.

지난번에 세\*호 문제로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다. 나는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 문제였다. 잘못하면 배는 넘어지는 것이고 가라앉는 것이다. 비밀이 있고 진실이 있는 것이 없다. 그날 항로를 이탈했다는 것이고, 조류를 잘못 만났다는 것이고, 또 일등항해사가 없었고 이등항해사가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무슨 비밀을 찾는다고 3년 동안 몇 천 억을 들여서 찾았다. 나올 것이 뭐가 있었는가? 아무 것도 없었다. 모르면 이것저것 찾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동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알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성경도 여기 보면 이렇고, 저기 보면 저렇고 해서 참 말이 많은 책이다. 연구도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하고, 그런 책이니까 다 알려면 끝도 갓도 없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으니까 끝도 갓도 없다.

그런데 답을 딱 얻게 되면 그 동안 연습장에 풀어보던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 수능시험 보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오면 자기 집에 가서 그 동안 봤던 참고서가 몇 박스씩 많은데 그것을 박스에 집어넣어서 밖에 내놓는다. 시험을 보고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시험 볼 동안에는 아주 필요한 것이었는데,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는가? 더군다나 중요한 말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11:25,26)라고 했다. 그 말만 해도 좋은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6)고 묻는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11:27)라고 대답했다.

대답은 매끄럽게 되었지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11:25,26)라는 대답은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인가?’ 하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과 똑 같다. 별로 의미가 없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틀렸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도 틀렸다. ‘대한민국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입니다.’ 하는 말과 똑 같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니고데모는 그 유명한 사람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 말을 결국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도 겸손하게 예수를 찾아온 사람인데, 그 말을 결국 못 알아들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4,15)고 대답했다. 그것도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그런데 답을 얻고 보니까 그것은 장대에 달린 낚시 바늘이신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거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 거기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태어나 봐야 아는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다른 생명을 얻고 나면, 새 생명을 얻고 나면, 내가 다시 태어나고 나면,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새로운 인생이 되고 나면, 이 말을 알게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말이다. 아무리 연구한다고 알겠는가? 이것은 연구한다고 알아지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증거한다면 확실하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새로 발견된 사람이다.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나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제 페이스 북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묻는 질문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써놓았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 아담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3:10), 부끄러워 숨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두려워 숨은 사람, 부끄러워 숨은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다. 아담 이후로 아무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한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뭘 다 이루었는가? 하나님이 질문하신 질문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3:9)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돌려드렸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 있는가? ‘당신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야, 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이 대답 밖에는 할 대답이 없다.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을 봤지만 이분이 이런 대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 많은 이적들을 행해서 놀랐다.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이런 대답을 할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망한 것이 아니겠는가?

놀라운 분, 마리아가 대답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11:27)라고 했다. 이 말은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믿습니다.’라는 이 말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행적을 보고, 다 사람의 생각대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랬으니까 실망을 하지 안 그랬으면 실망을 했겠는가?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가장 먼저 실망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던 그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알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모르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실망했던 그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구속도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나를 찾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아닌가? 우리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줄로 알았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내 자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그 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니고데모도 거기서 다시 태어나야 되

고, 나도 거기서 태어나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태어나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로서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안 됐다. 그래서 100살에 다시 시작한다.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된다. 다른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삭도 마찬가지다. 야곱도 마찬가지다. 전부 다른 세계로 들어왔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외계인이다. 우리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다. 원형을 보존하고 있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이고, 동산 안에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다. 두렵고 부끄러운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모른다. 우리가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 밖에는 없다. 안 되니까 부끄럽다. 항상 인생이 그렇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렇게 자신이 의식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다 두렵고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만물 앞에 부끄럽다. 동물과 하나도 다른 게 없다. 반려견을 훈련하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람이나 개나 똑 같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개에게 ‘애’라고 하고 ‘예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들이 돌았네, 왜 개를 보고 애들이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다.

개를 훈련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개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하는 것이라고 한다. 애완견이 아니고 반려견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교육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나 똑 같다. 단지 사람보다 기억력이 짧다든가 이런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1초 내에 벌을 줘야 된다고 한다. 안 그러면 안 된다고 한다. 1초를 넘어 가 버리면 왜 자기가 맞는지 모른다고 한다. 뒤에 때리면 헛일이라는 것이다. 괜히 주인과 관계만 나빠진다고 한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모른 체해야 된다고 한다. 나에게 와서 왕왕 거리면 모른 체 해야 된다고 한다. 아는 체를 해주면 늘 그런다고 한다. 완전히 모른 체하고 엉뚱하게 다른 것을 주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놈이 해 보다가 아무리 떼를 써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잘하는 쪽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나 개나 똑 같다. 그래서 애완견이라고 하지 않고 반려견이라고 하고, 훈련이라 하지 않고 교육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게 그것이지 별로 차이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겠는가? 모른다. 다 자기가 잘 난 줄로 알고 있고 자기가 잘 사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것은 불교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 '나를 찾아 떠나는 길'이라고 해서 평생 자기를 찾는 길이다. 그런데 자기가 찾아놓은 자기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다는 것과는 다르다. 내가 나를 찾아 놓으면 그것은 아무도 쓸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서 쓰려고 했던 그 사람을 찾고 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했던 것은 자기를 형상화 하려고 자기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사람을 만든 것이지 우리가 무슨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초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초월한 사람은 하나님과 방불한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는가? 안 한다. 자기 혼자 영화시중의 미소를 띠고 앉아있는 것이지 누가 그 사람을 가져다 쓰겠는가? 아무도 쓸 수가 없다.

흠으로 지어진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 흠으로 지어진 그것이 참 인생인 것이다. 씨를 뿌리면 나고, 그 씨를 열매 맺고, 그것이 인생이다. 우리 자신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이 참 인생이다. 그래야 쓸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쓰더라도 그렇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다. 똑똑한 사람도 쓸 수가 없다. 주인이 쓸 수가 없다. 기업체에서는 너무 똑똑한 사람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안 뽑는다고 한다. 면접을 해보고 이 사람이 말을 잘 따르겠는가를 보려고 면접을 한다고 한다. 면접에서 똑똑한 체 해 버리면 안 된다고 한다.

사람은 누가 쓰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야 하나님이 안식을 하고 안식을 하는 것이다. **“지으시던 모든 일이 마치신 후에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그 날을 복 주어 거룩하게 했다.”**(출20:11 참고)고 한다. 하나님이 안식해야 사람에게 복을 준다. 자기가 불안한데, 불편한데 복을 주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안식케 하면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다. 복을 달라고

빈다고 주겠는가?

개를 훈련하는 사람도 개가 킁킁거린다고 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때는 모른 체 한다고 한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는가? 쓸모도 없는 사람이 와서 킁킁거리고 뭐 달라고 하면 모른 체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귀찮기도 하고 길들이기 위해서라도 그냥 놔둬야지 그럴 때마다 대답해주면 되겠는가?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분 속에 바로 우리의 구속의 자리가 있었다. 이런 일을 행하신 그것을 보고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아무도 몰랐다. 만일 끝까지 기적만 행하다가 갔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되고 마는 것이다. 위대한 분이고 놀라운 분이었다고 하면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겠지만 나와는 관계가 없다.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돌부처와 나와 관계와 똑 같다.

돌부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대구지방에 갓바위 부처는 공을 들이면 일 년에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부산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부산 쪽에서 온 사람들 소원을 잘 들어준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의 자비를 유발시키려면, 그분의 축복을 우리가 유발시켜야 축복을 받는다. 그냥 떼쓴다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이 말을 누가 어떻게 알아듣겠는가? 누가 그때 이것을 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했으면 경배밖에 더 하겠는가? 내가 그에게서 다시 나와야 알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버리고 간 그 예수,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당당해진다. 거기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내가 금수저도 아니고, 내가 특혜 받은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당당하다. 내가 거기서 다시 태어나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없다.

바울과 요한을 비교해보았다. 바울은 다소 사람 사울이다.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희랍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희랍 문화에 젖어 있다. 율법에 통달했지만 역시 희랍사람이다. 요한은 본토 생이다. 본토박이, 왕토박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 사이에 아주 많이 다르다.



바울은 희랍 로마 세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니까 희랍의 철학과 로마 법률의 개념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다.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 법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고 철학적인 개념도 있다. 로마인들은 법이 유명하다. 왜냐하면 정복자들은 정복을 하고 나면 정치를 해야 하니까 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이 강화된 것이다. 순전히 칼잡이들인데 계속 칼로 통치할 수는 없으니까 법을 만든 것이다. 정복자는 다 그렇다.

그 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구약의 예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로마서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법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간다. 그것을 기독교가 받아서 이어간 것이다. 캐톨릭을 통해 거기서 갈라 나와서 특별히 동방교회가 아닌 서방교회가 그렇다. 그런 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면 내 생명이 온전해야 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요한은 아주 그런 것과 관계가 없고 아주 순수하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다. 요한복음이나 요한1,2,3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전부 생명의 복음이다. 생명이 아니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말들이다. 법률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형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그분 안에서 새로 태어나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말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것이다.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다. 잃었던 내 생명을 다시 찾게 되고,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지만 우리는 몇 년 만에 살아났는가? 잘못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죽을 뻔 했다. 그냥 법 테두리에서 돌아다니다가 말 뻔 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얻지 못했던 것, 제자들로 헛갈렸던 것,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그것이 참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6:5)는 말을 로마서 6장에서 하고 있는데, 목표는 어디 있는가? 내가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만이 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6:4)고 한다. 문제는 도로 새 생명이다.

요한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어떤 시대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다. 바울은 율법을 많이 동원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은 율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산에 있던 생명을 끄집어 낸 것이므로 훨씬 깊다.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 이야기를 자꾸 쓰고 있다.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을 범해서 비난 받는다.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다고 그렇게 한다.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쪽 보면 전부 생명의 복음이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고 나서 첫 번째 이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이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가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4장에 오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들로 예배한다는 것을 말한다. 5장에 오면 아들의 권위를 말한다. 아들의 권위는 안식일보다 크다는 것이다. 6장에 오면 먹는 문제이다. 7장에 가면 마시는 문제이다. 8장에 가면 생명 안에서의 용서이다. 9장에 가면 눈 먼 사람을 뜨게 했다는 것이다. 10장에 가면 생명의 목장이다.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이다. 전부 생명에 관계된 것이다. 율법과 이런 것에 관계되지 않고, 전부 생명관계를 말한다.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생명의 문제이다. 법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이다. 법은 모세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거기서부터 무엇을 시작하면 안 되고 그전으로 가야 한다. 아예 그전인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 그 법이 큰 것이니까 무엇을 해도 다시 율법으로 시작하고 시작한다. 죄라는 개념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다. 율법적인 죄이다. 죄의 잣대가 율법에 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죄는 율법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이탈한 것을 말한다. 그것은 율법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이다. 동산 안에는 율법이 없다. 원죄는 율법적인 죄가 아니다. 율법 이전의 문제이다. 이것은 알고 보면 생명의 문제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3:5)**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했던 것이 율법에서 이탈한 것은 한참 다음 문제이다. 유대인들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거기서 우리 인생을 찾을 수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말은 딱 두 가지 말이면 끝난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3:9)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3:10)라고 했다. ‘예수 너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들어야 하는 대답을 들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본다. ‘헌래야, 너 어디 있느냐?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내 인생이 답이 된다. 여러 말 할 필요 없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았던 것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으로는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다 공수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고 질문한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대답한다. 누구나 다 죽으면 흙으로 가는 것이고, 누구나 죽으면 다 공수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그 말을 해서 내가 공석에서 이야기를 했다.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죽을 것인데 뭘 그것을 그리 생각하느냐 그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말하고 같은 것인가? 아니다. 아주 다른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죽으면 똑같다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 안에 발견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했던 사람도,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가 나는 그 송장을 끄집어냈다는 이 사람일지라도, 그 말이다.

이것은 바로 아담이 원했던 것이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고 싶었다. 그럴지라도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사람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사람이 죽으면 다 공수래공수거지 뭐가 있는가?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끝이다. 그런 생각이 없다.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 사람에게서 나오고, 죽으면 다 끝이라는 것이다. 혼비백산이라고 한다. 죽으면 또 가서 세상에 가서 산다거나 천당에 간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예수를 알 수 없다. 오늘밖에 없어야 아는

것이지 죽은 후까지 다 알고는 예수를 모른다.

죽은 후를 알고 하는 사람이 많다. 사후세계에 대해 알고 하는 사람이 많다. 사후세계에 대해 아는 사람이 누가 확실하게 있는가? 보니까 다 모두 엉터리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와 관계가 없다. 사후세계가 또 있으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

좌우간에 사후세계에 갔다가 도로 거기 가서 다시 산다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찾을 필요 없다. 죽으면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모르겠다. 나도 죽은 후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절박한 것이다. 그 다음이 있으면 절박할 것이 뭐가 있는가? 적당히 가서 살면 된다.

이런 사람일지라도, 여기서 이런 이적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면 바로 아담이 바랬던 사람이겠구나. 아담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겠구나.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다. 도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하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면 된다. 그릇이 다를 뿐이다. 군대에 가도 만 명을 거느릴 사람이 있고, 천명 거느릴 사람이 있고, 일개 분대 거느릴 분대장도 있다. 그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쓸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한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 형상이니까.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적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하다.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다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쓰고, 나는 나대로 쓴다. 내가 한 일을 예수님이 못할 수도 있으므로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나대로 써주시니까, 나대로 다 쓰시니까, 나는 나대로 쓰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나는 죽은 사람을 못 살려도 아무렇지도 않다. 옛날에는 그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목사가 되어서 교역자가 되어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오리라고 했는데 낮기는커녕 창피만 당하고 부끄럽기만 하다. 그런 요청이 오면 아주 곤란했다. 이것을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아주 곤란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안 된다. 손을 얹어 병을 고칠 사람은 고치고, 못 고칠 사람은 또 못 고치고, 다른 데 쓰면 된다. 다른 일에 쓰면 된다.

하여간 나로서는 최대한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다. 나만큼 최대한 쓰신다고 생각한다. 예수님만큼 못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분은 그분이니까 그렇게 쓰시는 것이다. 형상으로 지었기를 왜 형상으로 지었겠는가? 그렇게 쓰려고 형상으로 지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실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모세 때는 모세에게 그렇게, 예수시대에는 예수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쓰셨으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을 100% 쓰신 것이다. 나는 또 나를 100% 쓰신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시대에 100% 쓰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각목도 있고 판자도 있고 둥근 목도 있다. 다 그대로 쓴다. 판자 쓸 때 각목 쓸 수 없고, 각목 쓰는데 판자를 쓸 수도 없다. 채를 메려면 둥글어야지 각목이면 아프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다 쓰시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쓰신다고 생각한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써주십시오. 저렇게 써주십시오.’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사장은 사원들을 보면 어디다 배치할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는가? 걱정할 것이 없고, 나대로 최대한 쓰신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감사하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와 너무 다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요11:39,40)라고 하고 불러냈다는 것이다. 이것을 누구나 하겠는가? 아무나 못한다. 역사상에 예수 한분밖에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나를 살려주었으니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아무렇지 않다. 하나님이 안 써 주셔서 안 준 것인데 걱정할 것이 뭐가 있는가?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다 쓰셨으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다. 지금도 그렇고 늘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를 나 이상으로 사용  
하는구나. 흠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농부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